

**【 IF THE SNAKE- 다시 한번 현대아트로 오카야마가 물듭니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올해 가을 3년 만에 제 2회 현대 아트 국제전 「오카야마 예술교류 2019」가 개최됩니다.

사실 제 1회를 개최할 때에는 도시 속의 현대 아트 작품이 돌연 나타나는 전에 없는 풍경에 시민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과 함께 흥미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작품에 접하는 것 같았지만 방문하시는 여러분의 입소문이나 외부의 높은 평가를 받아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방문객이 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약 23만 4천 명이 관람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예상을 웃도는 호평을 받아, 일부 작품을 전시 장소에 남길 수 있었고 작품을 전시한 장소로는 오리엔트 미술관이 전년 대비 157%, 오카야마 성이 127%로 입장객이 증가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대되는 것이 제 2회.

아트스틱 디렉터로 지난 회에 나체여인상의 머리에 큰 벌집을 입힌 작품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피에르 위그 씨가 오셔서 얼마 전 그가 고안한 타이틀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제목은 「IF THE SNAKE 만일 뱀이」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외관이나 파악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현대 미술의 매력 중 하나인 것은 아닐까요.

뉴욕 타임즈가 발표한 올해 가봐야 할 여행지에 「세토우치의 섬들」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세토우치의 다도의 아름다움이나 지역 특색이 풍부한 관광자원과 함께 회를 거듭함에 따라 세토 예술과 오카야마 예술 교류가 오카야마 지역에 현대아트를 정착시켜 오카야마의 팬을 늘리는 2대 예술제로 자리매김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고자 합니다.